안녕하세요. 로지컬민법 장현명입니다.

총평에 앞서 1년 동안 여러분이 흘린 땀과 참아 낸 고통을 생각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결론적으로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최근 무난한 시험이 계속되어 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시험의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입니다.
난이도 上 8 / 中 21 / 下 11 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上 문제는 5, 6, 12, 16, 19, 21, 27, 30번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년에 난이도 上 문제가 4~5개 정도였던 데 비하면 민법 평균 또는 커트라인 점수는 5~10점 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난이도 상승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형적으로 출제되던 핵심 판례들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그 자리에 2021~2022년 선고된 최신판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6, 19, 30번 문제가 최신판례를 핵심 지문으로 출제한 문제였습니다.
최신판례들이 많다 보니 예년에 비해 해설지 분량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2. 사례 형식의 문제 수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하나의 사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선지별로 개별적으로 사례를 풀이해야 하는 5번, 16번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위 두 이유로 인해 문제풀이 소요시간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문의 난이도 때문이 아니라, 소요시간 때문에 난이도 下가 아닌 中으로 분류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上 문제가 늘어난 것도 그렇고, 난이도 下 문제 비중이 줄어들어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시간이 충분했다면 지문을 뜯어보면서 단어 하나하나 읽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난이도 높은 문제를 모두 완벽히 풀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향을 적게 받고, 나머지 中, 下 문제를 다 챙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험생 스스로도 전체 커트라인 하락 폭 정도만큼 손해보더라도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빈출판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 안 되면 기출문제집만이라도 남보다 두 배 더 회독하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80점 선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다 고득점을 원한다면 조문과 기본 원리 학습이 중요합니다.
출제위원들이 '이 정도 판례는 다 알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도 문장을 읽고 생각해보면 그 제도의 기본 원리에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추론해낼 수 있는 내용을 주로 출제합니다.(그 정도를 벗어난 고난이도 문제는 작정하고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 추론 능력은 민법 전체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공부방법은 결국 조문을 촘촘히 따져보고 뜯어보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조문을 상세히 공부하다보면, 해석론을 제시한 판례를 암기해야 하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낯선 판례 역시 손쉽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조문과 기출문제라는 두 가지 요소를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